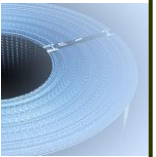


2008. 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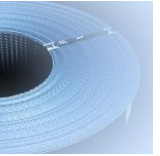
POSRI CEO REPORT

최근 국부펀드의 전략적 투자 행태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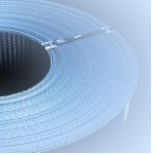
사동철, 고준형, 김정훈, 정철호

Executive Summary



〈최근 국부펀드의 전략적 투자 행태와 시사점〉

- ❑ 유가 등 실물자산 가격 급등과 신흥개도국의 외환보유고 급증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 및 산유국을 중심으로 국부펀드 확대 추세가 가시화
 - 2007년 말 기준으로 40여 개에 달하는 전세계 국부펀드의 자산규모는 약 3조 달러 내외로 추산되며, 2022년에는 약 28조 달러에 이를 전망
 - 전세계 국부펀드는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큰 중동 산유국 및 아시아 수출국 등 대부분 개도국들에 의해 운용
- ❑ 최근 국부펀드는 신흥개도국에 대한 투자 확대와 투자대상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자산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적 투자로 이동
 - 중동 국부펀드의 자산운용 전략은 신성장산업 육성, 역내 금융투자 확대, 고수익 위험 자산 투자비중 확대, 신흥개도국 투자 증대에 역점
 - 2007년 9월 출범한 중국투자공사(CIC)는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자산, 석유·철광석 등 해외 자원에너지, 글로벌 첨단기업 등에 집중 투자
 -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의 투자도 금융과 통신·미디어 등 전략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으며, 지역별로는 싱가포르와 아시아에 집중 투자
- ❑ 고유가와 외환보유고의 증가세로 국부펀드의 신규 설립이 늘어날 전망이다, 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과 신흥시장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확대될 전망
 - 수익성 추구에 따른 달러화 표시 자산비중의 축소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글로벌 통화인 달러화의 위상 저하가 우려되며, 중국이 자원확보에 집중할 경우 국제 원자재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증대
 - 선진국의 전략산업 등 안보와 직결된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자제하는 한편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전략적 투자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
- ❑ 향후 외국 국부펀드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행태에 따른 위험 및 기회요인을 분석해 사전 대응책 마련 필요



목 차

I. 최근 국부펀드 현황	1
II. 주요 국부펀드의 전략적 투자 행태	2
1. 중동계 국부펀드	
2. 중국 국부펀드	
3. 싱가포르 국부펀드	
III. 국부펀드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	8
IV.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0

I. 최근 국부펀드 현황

□ 유가 급등과 개도국의 외환보유고 급증에 따라 산유국 및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국부펀드 확대 추세가 가시화

- 누적된 외환보유고를 재원으로 자산규모 기준 상위 40개 국부펀드 중 18개가 2000년 이후 설립
- 우리나라는 2005년 한국투자공사(KIC, 자산규모 200억 달러)를 설립하였고, 일본은 2009년에 新 재생에너지·자원에 집중 투자를 위한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만, 인도도 외환보유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부펀드 설립 검토

□ 최근 글로벌 신용위기 상황에서 국부펀드가 서구 금융권에 자금 지원을 하면서 국부펀드에 대한 관심 고조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세계 국부펀드가 서구 금융기관에 투자한 자금은 약 690억 달러 정도
- 국부펀드가 금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으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는 등 글로벌 경제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

□ 국부펀드는 금융위기 해결사로 나섰지만,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행태로 선진국들이 경계심과 우려감 표시

- 선진국들은 국부펀드 운용의 투명성 제고 압력, 자국기업 보호 확대 등 국부펀드에 대한 경계 강화 및 규제책 마련 중
- 국부펀드가 기간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국가간 분쟁이 발생 시, 시장개방화 흐름에서 금융보호주의로 역행할 가능성 대두

□ 2007년 말 현재 전세계 국부펀드 자산 규모는 약 3조 달러로 추산

- 전세계 국부펀드는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큰 중동 주요국(점유율 46.2%) 및 아시아 개도국(30.3%)들에 의해 운용되고 있고, 유형별로는 상품펀드가 약 62%를 차지

<국부펀드의 유형>

	상품(Commodity) 펀드	비상품(Non-commodity) 펀드
재원	원유 등 원자재수출	국제수지흑자, 채권발행, 정부잉여재정
설립목적	원자재가격 하락 시기에 정부재정 수입 안정성 확보 위한 안정화펀드 성격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 등 향후 재정 지출 확대 대비 위한 저축펀드 성격
운용국가	주로 중동, 러시아, 남미개도국	주로 아시아 개도국 및 일부 선진국

자료: 한국은행에서 재인용

□ 중동 산유국의 오일달러와 아시아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증대로 국부펀드 규모 확대

- 2002년 이후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중동 산유국 등 원자재 수출국들의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
-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상흑자 지속으로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외환보유액 운용의 수익성 제고 압력이 증가

※ 세계 외환보유액은 2007년 말 현재 약 6조 달러

II. 주요 국부펀드의 전략적 투자 행태

1. 중동계 국부펀드

□ 고유가 지속에 따라 중동계 국부펀드 증가세 지속

- 2007년 기준 자산규모는 1조5,000억 달러 내외로 추산되며, 유가가 100달러/배럴을 유지할 경우, 2020년에는 7조 달러에 이를 전망(McKinsey)
-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주식 50%~60%, 채권 20%~25%, 부동산 5%~8%, 사모펀드 10%, 헤지펀드 등 기타자산 10%로 구성

□ 보수적인 자산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

- 석유 고갈 대비와 미래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신성장산업 육성 및 기술 습득을 위해 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M&A 확대
- 산업 다각화 및 인프라 정비와 국제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목적의 역내 투자 확대
- 서브프라임 사태 발발로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美 국채 등 안전자산 투자 중심에서 부동산,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고수익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
 - ※ 쿠웨이트·카타르 국부펀드와 아부다비투자청은 GM빌딩과 크라이슬러빌딩을 각각 인수
 - ※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로 유입된 오일달러는 약 3,500억 달러로 추정
-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신흥개도국의 고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신흥개도국에 대한 투자 증대
 - ※ 중동 주요국(GCC), 2002년 이후 신규 FDI 중 22%를 신흥개도국에 투자

□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로 금융위기에 빠진 선진국 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글로벌 위상 강화

- 아랍 에미리트 연방(UAE)의 아부다비투자청은 씨티그룹에 7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카타르투자청도 런던증권거래소에 지분 투자
- 성장성이 충분하면서도 저평가된 서구 금융기관에 지분을 투자 함으로써 투자 수요도 충족

<중동계 국부펀드의 주요 전략적 투자 현황>

국부펀드	주요 전략적 투자 내용
두바이 (UAE)	미국 나스닥 19.9% 지분 투자 영국 런던증권거래소 28% 지분 투자 북미 증권거래통합체 OMX 주식 10% 취득 영국 항만운영업체(P&O)에 88억 달러 투자 중국 공상은행에 10% 지분 투자, 7억2,000만 달러 한국 오일뱅크에 70% 지분 투자
아부다비 (UAE)	미국 칼라일그룹에 7.5% 지분 투자, 13억5,000만 달러 미국 씨티그룹에 4.9% 지분 투자, 75억 달러

카타르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 20% 지분 투자, 14억 달러 싱가포르 텔레콤에 26% 지분 투자, 6억3,500만 달러 북유럽 증권거래소에 10% 투자, 4억7,000만 달러 중국 공상은행에 3% 지분 투자, 2억 달러 영국 유통업체 세인즈베리에 25% 지분 투자, 210억 달러 크레디트스위스에 30억 달러 투자 추진
사우디	미국 GE 플라스틱 사업부에 116억 달러 출자 터키텔레콤에 66억 달러 출자
쿠웨이트	중국 공상은행에 10% 지분 투자, 7억2,000만 달러 미국 씨티그룹에 30억 달러 투자 미국 VISA카드에 4% 지분 투자

자료: 각종 기사 종합

2. 중국 국부펀드

□ 중국은 급증하는 외환보유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중국 투자공사(CIC)를 설립(2007. 09.)

- 중국투자공사의 운용자산은 약 2,000억 달러로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였고, 향후 인민은행으로부터 보유외환을 구입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방침
- 운영자산 중 약 700억 달러는 기업회생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금투자공사’의 지분 매입에, 900억 달러는 해외 자산투자에, 나머지는 국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사용될 계획

□ 중국투자공사는 선진국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와 전략자원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

- 중국투자공사는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블랙스톤과 美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에 각각 30억 달러와 50억 달러를 투자

<중국투자공사의 금융기관 투자 사례>

시기	투자내용	업종	지분율/투자금액
2008.03	美 JC플라워스와 사모펀드 공동설립	금융	자본금의 80% /32억 달러
2008.03	美 VISA카드 IPO 참여	금융	1억 달러
2007.12	美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투자	금융	9.9% /50억 달러
2007.05	美 사모펀드 블랙스톤 투자	금융	9.7% /30억 달러

-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는 자원에너지, 자동차, 전자 등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인 대형 글로벌기업들을 중국 국부펀드의 주요 투자대상 후보로 제시

<중국 국부펀드의 주요 투자대상 기업>

분야	기업명(국가)
자원에너지	BHPB(호), Rio Tinto(호), 발레(브), 가즈프롬(러), ROSNEFT(러)
금융	HSBC(영)
정보통신	Infosys Technology(인도), Hutchison Whampoa(홍콩)
자동차	현대자동차, 도요타자동차
전자	삼성전자, 도시바, TSMC(대만)
항공	싱가포르항공

자료: Credit Suisse

□ 최근 들어 중국투자공사(CIC)가 철광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호주 및 브라질의 광산기업 지분 매입을 추진 중

- 중국투자공사는 중국 신화에너지그룹과 20억 달러를 투자해 호주 3위의 광산업체인 포테스크메탈그룹(Fortescue Metals Group)의 지분 15.9% 인수 협상을 추진
- 또한 상해보강, 수도강철, 사강그룹 등 중국 주요 철강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브라질 CSN의 철광석 부문의 지분 매입을 추진 중(WSJ, 2008/ 6/20)
- 중국알루미늄공사(Chinalco)가 BHPB의 리오티토(Rio Tinto)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알코아(Alcoa)와 함께 리오티토의 지분 9%를 매입하여 최대 주주로 부상하였고, 「*Australian Financial Review*」는 중국 국영기업이 BHPB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호주 투자자를 물색 중이라고 보도(2008/5/15)
 - ※ 중국기업이 리오티토에 이어 BHPB 지분까지 인수할 경우, 두 회사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리오티토-BHPB 합병이 성사될 경우, 철광석 가격 협상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질 것으로 예상

<중국기업의 호주 광산업체 지분 인수 사례>

중국기업	피인수 광산업체	시기	규모
Sinosteel	Midwest Corporation	2008. 02	40%
Angang	Gindalbie	2008. 02.	5억3,400만 A\$
Chinalco (with Alcoa)	Rio Tinto	2008. 01.	140억5,000만 달러
Shougang Corporation	Mount Gibson Iron	2005. 06.	1억2,000만 A\$
Sinosteel	Channar(Rio Tinto)	1987	40%

자료: AM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A\$: 호주 달러

□ 외환보유고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외환관리국(SAFE)도 최근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

- 금년 들어 호주 대형은행 3곳의 지분을 매입하는 한편, 글로벌 석유화학기업인 프랑스 토탈 및 영국 BP의 지분 매입에 활발하게 투자
- 과거 美 국채 위주(70% 이상)로 저위험 투자에 치중해온 국가외환관리국이 최근 공격적인 투자행태를 보이는 것은 주로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투자다변화와 중국투자공사와의 경쟁관계 때문
- 국가외환관리국이 공격적인 성향의 국부펀드로 자리잡을 경우, 규모상 영향력이 중국투자공사를 월등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는 중국투자공사와 달리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의 최근 투자사례>

시기	투자 주체	투자 내용	업종	투자액
2008. 04.	SAFE	영국 BP, 프랑스 토탈	석유화학	10억 파운드, 28억 달러
2008. 01.	SAFE 홍콩자회사	호주 대형은행 3곳	금융	각 1억7,600만 달러

3. 싱가포르 국부펀드

□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투자청(GIC)과 테마섹(Temasek) 등 두 개의 국부펀드를 운영

○ 싱가포르투자청과 테마섹의 자산규모가 각각 최대 3,300억 달러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싱가포르투자청은 주식(50%), 채권(30%), 부동산 등 기타자산(20%)에 투자하는 반면, 테마섹은 장기 투자를 선호하며 M&A 지분 투자 등 기업 투자에 관심

※ 싱가포르투자청은 우리나라의 파이낸스 빌딩, 스타타워 빌딩 등을 소유

□ 테마섹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금융, 통신·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높은 수익률 기록

○ 1974년에 설립된 테마섹은 정부잉여자금의 60%를 운용해, 설립 이후 연평균 18%의 수익률을 기록

○ 지역별로는(2007년 3월 기준), 아시아 지역 40%, 싱가포르 지역 38%에 투자한 반면, 선진국 투자는 20%에 불과

※ 싱가포르투자청은 선진국 위주로 투자(미국 45%, 유럽 25%, 일본 10%)하고 있는데, 향후 신흥시장국에 대한 투자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

○ 업종별로는(2007년 3월 기준), 금융이 38%, 통신·미디어가 23%, 운송·물류가 12%를 차지

<테마섹의 주요 투자기업 및 지분 현황>

업종	주요 투자기업 및 지분율(%)
금융서비스	Standard Chartered(13), 하나금융그룹(10), ICIC Bank(7)
통신·미디어	MediaCorp(100), Singapore Telecommunications(56), Shin Corp(42)
운송·물류	PSA International(100), Singapore Airlines(55), SMRT Corp(55)
에너지·자원	PowerSeraya(100), Senoko Power(100), Singapore Power(100)
부동산	Mapletree Investments(100), CapitaLand(40)
IT	Chartered Semiconductor(60), STATS ChipPAC(83)

자료: Temasek Holdings(2007년 3월말 기준)

Ⅲ. 국부펀드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

□ 국부펀드가 국제 금융시장에 새로운 자금원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국부펀드의 전방위적인 투자 확대에 대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계 움직임이 확산

- 선진국, 개도국 국부펀드가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투자로 에너지, 통신, 금융 등 선진국의 안보 관련 전략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우려 표명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서구 금융권에 대한 국부펀드의 자본투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부펀드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
- 「*Economist*」는 국부펀드가 금융위기에 빠진 美 월가에 구원투수 역할을 하면서도 정치적 동기를 투자전략으로 설정해 투자 대상국의 금융시장 보호주의를 자극한다고 지적

□ 선진국들은 국부펀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 규제책 마련 중

- 미국은 IMF와 세계은행이 국부펀드의 자산운용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IMF는 국부펀드에 대한 글로벌 운용규칙을 제정 중에 있고, 오는 10월경 연차총회에서 초안을 발표할 예정
- 독일과 프랑스는 국부펀드의 유럽 내 기업인수와 관련해 EU 차원의 통합된 규제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특히 독일은 국부펀드의 자국기업 인수를 방어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 중
- 호주 정부는 지난 2월 선진국 중 처음으로 국부펀드를 규제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6대 심사원칙’을 제정
 - ※ 호주 정부의 조치는 중국알루미늄공사(Chinalco)와 알코아(Alcoa)가 리오틴토(Rio Tinto) 지분을 매입한 후 며칠 만에 발표돼, 최근 중국의 자본유입 급증이 상당한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

□ 국부펀드 당사국들은 자발적인 투자윤리강령을 제시하고 국부펀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 아부다비투자청과 싱가포르는 ‘국부펀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며, 경제적 목적으로 투자한다’는 점에 대해 미국과 합의 성명 발표

※ 아부다비의 국부펀드인 무바달라(Mubadala)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동 국부펀드 가운데 처음으로 신용등급 평가를 받기로 결정

- 중국 국부펀드도 정치적 목적에 의한 투자를 지양하고 투명성 강화를 약속

※ 루즈웨이 중국투자공사(CIC) 회장은 “중국투자공사를 정치적 의도가 없는 순수한 기업으로 봐주길 바라며, 환영 받지 못하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강조

□ 최근 각국 정부들이 국부펀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어 향후 국부펀드에 대한 규제 압력이 점차 가시화될 전망

- 금년 말 국부펀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결실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합의될 가이드라인에 국부펀드 당사국들의 동의 여부가 관건

- 자발적인 가이드라인 수용을 둘러싸고 각국 정부와 국부펀드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국부펀드들이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투자 제한 등 더욱 강도 높은 규제가 추진될 가능성 대두

□ 한편 영국과 일본은 국부펀드 유치에 적극적

- 영국은 기존의 독점방지법에 대한 저축 여부만을 감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소하고 국제 금융중심지인 런던의 경쟁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국부펀드에 투자를 요청

- 일본은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법인세(현행 최대 40% 부과)의 면제를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부펀드가 자국 은행의 지분을 20% 이상 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

※ 쿠웨이트투자청은 향후 일본 투자규모를 현재의 3배인 48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NIKKEI, 2008/8/3)

IV.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고유가 현상 지속과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전조한 증가세로 국부펀드의 신규 설립은 계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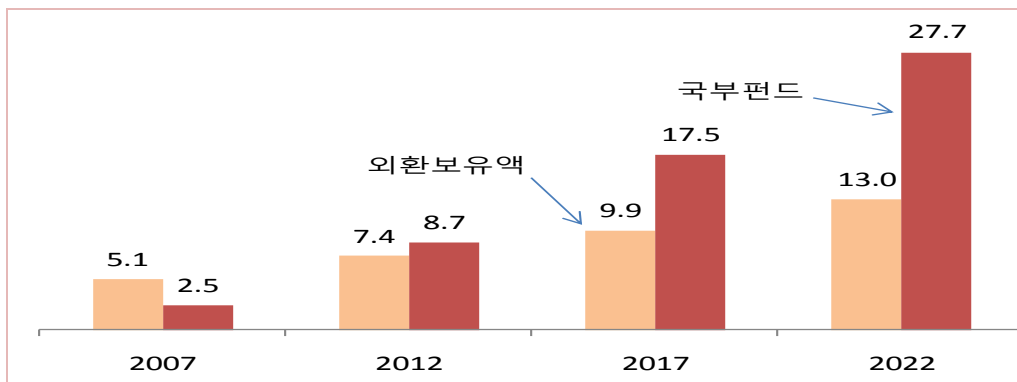
- 캐나다와 브라질 등은 국내 인플레이 억제와 자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방어하겠다는 차원에서, 원유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오일달러로 국부펀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 브라질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최대 3,00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할 계획(*FT*, 2008/6/9)

- 일본은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연료,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와 자원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국부펀드를 2009년에 설립할 계획이며, 대만과 인도도 국부펀드 설립을 검토

※ 국부펀드 규모 전망

: Morgan Stanley(2007)는 2022년에 전세계 국부펀드 규모가 28조 달러로 증가해 외환보유액의 두 배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자료: Morgan Stanley
단위: 조 달러

□ 향후 선진국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신흥시장에 대한 전략적 투자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

- 선진국의 전략산업 등 안보와 직결된 민감산업에 대한 투자를 자제하는 한편,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

- 원활한 자원 공급이 절실한 중국 국부펀드는 향후 호주와 아프리카 등 광물자원 보유국가에 대한 자원 선점 효과를 위해 이들 지역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

□ 달러화 표시 자산비중의 축소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추구로 글로벌 통화로서의 달러화 위상 저하 우려

- 국부펀드의 수익성 위주 자산운용은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 달러화 자산에서 비달러화 자산으로 투자 비중을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달러화 약세 가속화 및 환율 변동성 확대 유발 가능
- 중국투자공사 등 국부펀드가 달러자산 투자에서 본격적으로 이탈할 시 기축통화로서 달러화 위상이 약화되면서, 달러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이행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 대두

□ 국부펀드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상품시장을 교란하고 정치적 분쟁까지 유발할 가능성 대두

- 중국이 국부펀드를 활용해 자원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경우 국제 원자재가격 흐름을 왜곡하고 자원민족주의 및 자원독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
- 주요 국부펀드들의 투자전략이 크게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자산이나 특정 국가로 자금이 편중되는 경우,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대상국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

□ 글로벌 신용경색이 다시 심화되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자금원으로서 국부펀드의 역할 재부상할 가능

- 최근 국부펀드의 자금 지원은 서구 금융기관들의 신용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을 낮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 국부펀드는 포트폴리오의 급격한 재조정 가능성이 크지 않고 자산회수가 단기간에 요구되지 않는 장기적 투자자라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자본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외국 국부펀드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행태에 따른 위협 및 기회요인을 분석해 사전 대응책 마련 필요

- 오일머니로 막대한 자금력을 과시하는 중동계 국부펀드에 대한 투자재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검토
- 중국 국부펀드의 자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가져올 위협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차이나머니의 국내주식 매입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정부는 외국 국부펀드의 국내 투자에 대한 규제기준 및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검토

- 국내 전략산업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호주 정부의 규제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
- 국부펀드의 적대적 매수 타깃 가능성이 있는 국내 주요 수요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검토

사동철 (e-mail: dsa@posri.re.kr)
고준형 (e-mail: jgoh@posri.re.kr)
김정훈 (e-mail: jkim068@posri.re.kr)
정철호 (e-mail: chchung@posri.re.kr)

☞ 이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참고> 세계 주요 국부펀드 현황 (2007년 말 현재, 단위: 십억 달러)

국가	펀드명	자산규모	설립연도
UAE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875	1976
Singapore	Gov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	330	1981
Norway	Govt Pension Fund-Global	322	1990
Kuwait	Kuwait Investment Authority	250	1953
China	China Investment Company Ltd.	200	2007
Russia	Stabilization Fund of the Russian Fed	127	2003
Singapore	Temasek Holdings	108	1974
Australia	Future Fund	50	2004
Libya	Reserve Fund	50	NA
Qatar	Qatar Investment Authority	40	2005
Brunei	Brunei Investment Agency	35	1983
Ireland	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	29	2001
Algeria	Reserve Fund	25	NA
Korea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20	2006
Malaysia	Khazanah Nasional BHD	18	1993
Kazakhstan	Kazakhstan National Fund	18	2000
Taiwan	Taiwan National Stabilization Fund	15	2000
Iran	Foreign Exchange Reserve Fund	15	1999
UAE	Istithmar	12	2003
Nigeria	Excess Crude Account	11	2004
UAE	Mubadala Development Company	10	2002
New Zealand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10	2003
Oman	State General Stabilization Fund	8.2	1980
Chile	Economic and Social Stabilization Fund	6	2007
Botswana	Pula Fund	4.7	1993
Norway	Govt Petroleum Insurance Fund	2.6	1986
Azerbaijan	State Oil Fund	1.5	1999
East Timor	Timor-Leste Petroleum Fund	1.2	2005

자료: Deutsche Bank, Monitor Group